

## 東洋醫學 과 獸醫針醫學(2)

徐斗錫\*

### 2. 陰陽學說

#### 1) 陰陽學說의 基本概念

陰陽이라고 하는것은 相互間에 對立과 統一이라고 하는 完全히 相反된 因子로 成立한 學說이다. 즉 事物의 根本의 兩面인 相對概念으로서 絕對的인 存在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陰陽學說은 古代人들의 長久한 세월에 걸친 生活에서 自然界萬物의 正과 反이 두가지의 屬性에서 발견되었고 이들의 屬性은 對立과 統一 그리고 陰과 陽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宇宙안의 모든 物質間에 있어서의 相互關係를 표현한 學說이다.

自然界에서는 天은 陽, 地는 陰, 太陽은 陽, 月은 陰, 春夏는 陽, 秋冬은 陰, 晴明은 陽, 雨는 陰, 火는 陽, 水는 陰이라고 각각 分類하였으며 事物의 性質은 活動的인것과 發揚的인것, 能動的인것, 積極的인것, 溫暖한것, 無形的인것, 등은 모두 밖(外)에 屬하므로 陽이라고 하고 이와 反對로 沈靜的인것, 晦暗的인것, 抑制的인것 등의 受動的인 것과 衰弱, 寒冷, 有形的인것 등은 안(中)에 屬하므로 陰이라고 한다.

以上과 같이 陰과 陽은 二個의 物体를 分別하고 1個의 物体中에서도 陰과 陽으로 分別한다. 이와같이 陰과 陽의 對立的인 相互關係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陰과 陽은 宇宙萬物의 成長과 變化 및 消亡의 根源이라고 한다.

東洋醫學의 考察할때 陰陽學說은 素朴한 矛盾의 觀念이라고 생각되며 動物體의 各部分은 모두 이 두가지의 對立 내지 統一에 의해서 形成된 것으로서 動物體를 구성하고 있는 物質과 그의 機能도 陰과 陽에 의해서 形成되었기 때문에 陰과 陽의 對立 내지 統一의 均衡이 상실되었을때에 疾病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며 疾病이 進行 또는 惡化하는 것도 이 陰과 陽의 均衡이 상실하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現象이라고 한다.

動物體의 구조와 機能도 陰과 陽에 의해서 成立된다고 한다. 즉 体内는 陰이고 体表는 陽이며 五臟은 陰이고 六腑는 陽이며 腹部는 陰이고 背部는 陽이라고 한다. 器官의 實質은 陰이고, 그의 機能은 陽이며 動物體의 機能과 營養物質과 血液은 陰에 屬하며 氣力은 陽이라고 한다. 즉 陰을 物質的인 것이라고 한다면 陽은 無形的인 것이라고도 할수있다. 그러나 陰과 陽의 關係는 絕對的인 것이 아니고 相對的인 것이므로 變化하는 것이라고 한다. 換言하면 固定된 事物의 代表的인 것이 아니고 一定한 조건에 의해서 고정되는 것도 아니며 事物의 對立과 그의 樣相과 處地에 의해서 變化한다는 것이다.

陰과 陽은 두가지의 對立關係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同一한 事物의 내부에 존재하는 相互間의 對立的인 두가지의 面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臟을 陰이라 하고 腑를 陽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臟이나 腑의 속(中)에는

\* 全南大學校 農科大學 獸醫學科

陰과 陽이 각각 併存한다. 예를 들면 心臟은 血液循環의 機能이 있으므로 機能自体는 陽에 屬하나 心臟의 器質과 血液(液体)은 陰에 屬한다. 肝은 血液量과 筋脈關節의 活動의 機能이 있으므로 機能은 陽이나 肝의 機能物質은 陰이다. 脾는 물과 食物을 運搬해서 변화시키고 이것을 깨끗하고 작게 만들어 血液의 機能으로 轉換시키는 作用을 하므로 陽이나, 이의 機能物質은 陰이다. 肺는 主로 呼吸作用과 心臟에서 拍出하는 血液의 血行機能을 補助하므로 陽이나 이의 機能物質은 陰이며 腎은 成長發育을 促進하고 水液과 新陳代謝 및 生殖機能을 調節하는 機能이 있으므로 陽이나 腎의 機能에 의해서 生産되는 物質은 陰이다.

以上 記述한 바와같이 陰과 陽의 機能은 動物체組織의 血行과 機能의 對立面的, 通常的인 代名詞이며 이들간의 對立과 統一의 總合關係를 나타내는 것이다.

## 2) 陰陽變化의 基本規律

陰과 陽의 對立과 統一의 相互關係에 對해서는 東洋獸醫學의 으로 몇가지의 重要한 表現이 있는데 그 中에서 代表的인 세가지를 지적해서 例를 들어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陰과 陽의 相互間의 根元 : 東洋醫學의 根元은 陰과 陽에서 發상한 것이라고 하며 陰이나 陽은 相互間에 單獨으로 存在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單獨으로는 삶(生)과 成長을 유지할수 없으며 相互間에 相反된 相對가 있으므로서 存在할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生의 根元은 모두 陰과 陽에 의해서 成立하는 것이므로 陰과 陽이 分離되면 精氣도 끊어진다고 한다. 즉 生命은 처음부터 끝날때 까지 陰과 陽의 相互連携와 相互反撓의 過程中에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陰과 陽의 連携가 斷切되면 生命도 停止된다는 것이다. 故로 이와같은 關係를 考察할때 陰과 陽은 서로 生命의 根元이라고 할수있다.

陰과 陽의 依存性과 連携性의 相互關係는 證明할수 있다고 한다. 즉 生理學的으로 說明하

면 動物체中의 精液, 唾液 등의 營養物質은 陰에 屬하고 이 物質의 基礎가되는 生理機能과 活動하는 것은 陽에 屬하며 機能의 活動을 발휘하는 데는 營養物質이 基礎이므로 營養物質의 形成과 補充이 지속적으로 營爲하는데 이들은 消化, 吸收, 輸送 등의 機能과 活動을 分離할수 없다. 그러므로 全身의 機能과 活動은 陽이고 物質的인 基礎가 되는것은 陰이며 氣는 陽이고 血은 陰이다. 血은 氣의 物質的인 基礎에 의해서 生成되고 氣는 基礎物質을 血液으로 變化시켜서 運行하는 動力的인 役割(活動)을 하므로 陰과 陽은 서로 相反하면서 相成한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서로 反하는 것과 成하는 것이 相互間에 成立되기 때문에 陰과 陽의 根元은 相互間에 共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生理的으로 結論을 맺는다면 陰과 陽은 陰陽相互間의 依存과 制約關係라고 할수있다.

陰과 陽의 消長 : 陰과 陽은 對立과 統一의 兩面이므로 靜止의이면서도 不變의이다. 그러나 陰이 衰退하면 陽이 왕성하고 陽이 쇠퇴하면 陰이 왕성하는 투쟁적인 過程에 의해서 變化해 간다고 한다. 즉 動物체의 各種 機能活動인 陽은 일정한 營養物質의 新陳代謝에 의하여 消耗하는데 이것은 陽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므로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陽이 왕성하고 陰이 衰하는 過程이며 各種 營養物質의 新陳代謝와 洋耗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熱量이 消失하는 것이므로 陰이 왕성하고 陽이 消失되는 過程이라고 한다.

生理的으로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消長은 正常이다. 正常的인 生理狀態下에서는 陰과 陽이 相對的動態의 平衡을 유지하는데 이것이 陰陽平衡이며 이와 같은 現象을 陰平陽秘라고 한다. 陰과 陽이 어느 한쪽이 衰하거나 旺盛해지면 이 自体가 病的異常이다. 따라서 陰과 陽의 相對的動態의 平衡이 상실되었을때 陽 또는 陰이 一方的으로 編重해서 盛하거나 衰하여 病的變化가 발생한다. 즉 陰과 陽의 平衡이 상실되었을때 生理的인 상태에서 病的狀態로 變化한다는

것이다. 이때에 陰이 虛하고 亢進하거나 이와 반대로 陽이 虛해지므로 인하여 陰이 亢進하거나 亢進되어 陽이 虛해지는 등의 陰平陽秘가 상실되기 때문에 病的異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陰과 陽의 轉化**: 陰과 陽은 서로 依存하고 連携할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陰과 陽은 지속적인 변화가 진행되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相互間에 轉化되어서 陰이 陽으로 變化하고 陽이 陰으로 變化하는데 陰이 陽으로 變化한 것을 重陰必陽이라 하고 陽이 陰으로 轉化한 것을 重陽必陰이라고 한다. 즉 寒은 熱을 生成하고 熱은 寒을 生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臨床學的으로 疾病의 原因을 高찰할때 알수있다. 換言하면 表(陽)가 中(陰)으로 들어가서 實(陽)이 虛(陰)로 變化한다는 理論이며 熱(陽)이 寒(陰)으로 變化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風寒表證을 治療하려면 熱(陽)을 變化시키어 中(陰)으로 넣어야 하고 邪盛實證을 治療하려면 虛(陰)를 實(陽)로 轉化시켜야 한다고 하며 陽이 盛하여 熱證(陽)이 발생한 때는 冷(陰)을 作用시켜서 寒證으로 轉化시키는 治療法을 適用한다 하고 이와 반대로 中(陰)을 表(陽)로 轉化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虛(陰)를 實(陽)로 轉化시키거나 寒(陰)을 熱(陽)로 轉化시키는 것이다. 氣가 虛證인 때는 氣가 돌지(循環)않기 때문에 血液이 貯留하므로 血液의 實證에 의하여 中(陰)의 寒을 溫燥藥物로서 陰의 惡液을 轉化시키어 內熱證으로 變化시킨다. 이들은 모두 臨床的인 實踐過程에 陰과 陽이 서로 轉化한 例이다.

### 3) 陰陽學說의 獸醫學的應用

#### 1) 發病學的的應用

動物체는 陰과 陽이 平衡狀態를 유지하므로서 정상적인 生理活動을 할수 있으며 健康을 維持할수 있다고 한다. 黃帝內經에 陰平陽必 즉 陰과 陽의 平衡을 유지하면 施針 또는 投藥하지 않고도 精神的으로 治癒된다고 記述하였는데 이것을 精神乃治라고 한다. 陰과 陽의 平衡이 상

실되어 陰과 陽의 어느 하나가 優勢하거나 劣勢할 때는 動物체에 病的變化가 유발되어 疾病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陰과 陽의 어느것이 旺盛하느냐 또는 衰退하느냐에 의해서 疾病의 발생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故로 陽이 우세하면 陰의 機能이 衰退되고 精氣가 消耗되므로 熱性病證을 나타내고 이와 반대로 陰이 우세하면 陽의 機能이 衰退되어 寒性病證이 나타난다. 따라서 陽이 우세하면 熱證이고 陰이 우세하면 冷證인데 陽이 우세하면 바깥(外)으로 熱을 放散하고 陰이 우세하면 안(內)으로 冷해진다고 한다.

陰과 陽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相互間에 消長의인 關係가 있기 때문에 陰이 우세하면 陽이 損傷되어 衰退하므로 陰이 不足해지고 陽이 우세하면 陰이 損傷되고 衰退하기 때문에 陰이 不足해진다. 따라서 陽이 實할때는 陰이 虛해지고 陽이 우세해지며 陽이 衰하고 陰이 우세하면 陽이 虛해지고 陰이 實해진다.

臟腑의 病理現象에 있어서 陰이 虛하고 實하면 虛·火라 表現하고 이와 반대로 陽이 虛하고 陰이 實하면 虛·寒이라고 表現한다.

生理學的的變化的 過程中에 陰과 陽의 어느 것이 우세하거나 쇠퇴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陰과 陽이 서로 相對側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變化하므로 인해서 重陰必陽 또는 重陽必陰이 나타난다. 寒이 極에 달하면 熱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眞實한 熱이라고 해서 眞熱이라 하고 熱이 극도로 상승하였을 때는 惡寒이 발생하여 四肢, 耳, 鼻 등이 冷해지며 脈拍이 細微해지는데 이것을 假의 寒이라고 해서 假寒이라고 한다. 假寒은 陽氣가 안(中)에서 停止되어 바깥(外)으로 放散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熱이 極에 달하여 寒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体表는 冷하나 안(中)은 高熱이 있는 病證이다. 故로 陽의 熱이 강경해 지므로 인하여 陰이 盛해서 虛가 寒證인 때의 疾病은 熱證으로 나타난다. 이때에 眞實한 寒임에도 불구하고 假熱이 발생하나 이것은 實際臨床에 있어서 이의 本質을 파악할수 있으므로 表面에 나타나는 現象에 현혹

되어서는 안된다.

## 2) 診斷學的應用

診斷的應用에 관하여 黃帝內經에 다음과 같이 記述하였다.

患者를 診斷할때는 四肢에 興奮, 狂躁, 不安 등이 있을 때는 陽의 疾病에 해당하는 疾病인 경우가 많다고 하며 이와 반대로 四肢가 쇠약하고 無力하여 눕는(伏臥) 것은 陰에 속하는 疾病인 예가 많다고 한다. 口粘膜이 赤色, 黃色 또는 光澤이 있는 경우에는 陽에 해당하는 疾病인 예가 많고 白色, 青色, 暗色 등의 색이 있을 때는 陰에 該當하는 疾病인 경우가 많으며 舌苔가 두텁고 黃色을 나타내는 경우와 薰이 乾燥한 경우는 陽에 속하는 疾病인 경우가 많으며 舌가 多濕하고 舌苔가 白色인 경우와 糞이 묽은(軟) 경우는 陰에 속하는 疾病인 때가 많다고 한다. 기침소리가 拍力있고 音程이 높은 때는 陽의 疾病인 경우가 많으나 기침소리가 拍力이 없고 低音程이며 無力한 경우는 陰에 屬하는 疾病인 예가 많고 脈拍이 浮(浮)있으나 脈拍數가 증가하고 유연하면서 強한 때는 陽에 속하는 疾病인 경우가 많으며 이와 反對로 脈拍이 沈衰하고 減少되었으며 弱하면서도 微力한 경우는 陰에 속하는 疾病인 예가 많다는 등등의 四診(望診, 聞診, 問診, 切診)에서 探知한 資料를 分析하여 患者가 陰과 陽의 어느 것이 強해 졌는가 또는 弱해 졌는가를 판단하고 그의 異常狀態를 是正하므로써 治療할수 있다고 黃帝內經에 記述하였다.

優秀한 診斷者는 色調와 脈拍을 觀察해서 陰과 陽을 診斷할수있다. 四診法이라고 하는것은 診察하는 手段으로서 望診(視診에 해당함), 聞診(聽診과 嗅診에 해당함), 問診(稟告에 해당함), 切診(觸診과 試驗의 切開에 해당함)을 總稱한것을 말하는데 四診을 觀察하는 基礎的인 條件은 弁証法的으로 分析한다. 즉 陰과 陽이 지니고 있는 弁証法的 基礎위에서 四診法을 應用해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熱証을 陽이라고 하고 寒証은 陰이라 하며 實証은 陽이고 虛証은

陰이며 表証은 陽이고 衰証은 陰인데 表와 衰는 그 疾病의 깊고(重証) 얕음(輕証)에 의해서 陰과 陽으로 分類되고 寒熱은 病証의 屬性에 의해서 陰과 陽으로 分類되며 虛實은 邪와 正의 消長에 의해서 陰과 陽을 區別하기 때문에 陰과 陽은 八綱目的 弁証法的의 總括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陰과 陽의 規律變化를 正確하게 파악하므로써 疾病의 本質을 판단할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盛하고 衰한지를 弁証法的으로 考察해서 診斷해야 한다고 한다.

## 3) 治療醫學的應用

黃帝內經에 의하면 疾病을 治療할때는 반드시 疾病의 根元을 究明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疾病의 根元이 陰과 陽中의 어느 한가지의 均衡喪失로 인한 것이므로 어느것이 異常이 있으며 強弱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治療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즉 陰과 陽의 變化가 심하지 아니면 심하지 않는가의 病理現象을 精確하게 診斷하여야 한다. 陰陽學說에 의한 疾病의 治療는 動物体内的 陰과 陽의 不平衡狀態를 平衡狀態로 環元시키는 것이 治療의 根本이므로 陰과 陽을 그 어느쪽에 맞추어서 平衡을 유지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論點이기 때문에 陰과 陽의 어느 쪽이 왕성하고 쇠퇴였는가를 究明하는 것은 治療의 根本的인 原則이라고 한다. 換言하면 陰에 속하는 疾病을 治療하려면 陽을 補하고 陰을 瀉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陽에 속하는 疾病은 陰을 補하고 陽을 瀉하는 방법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寒은 熱로, 熱은 寒으로, 虛는 補로, 實은 瀉의 방법, 즉 証과 반대되는 방법을 施術한다는 理論이다.

때로는 陰과 陽이 서로 轉化하는 過程에 복잡한 상황이 經過하는 期間中에는 陰과 陽을 혼동하기 쉬운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달라진 상황에 따르는 治療法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陰과 陽이 交雜하는 証이 있을때는 寒熱을 併用하거나 外(外)와 內(內)의 雙方에 有效한 藥 또는 施針을 적용한다. 自家中毒에 대해서는 証에 따라서 下劑와 止瀉劑 등을 투여할 필요가 있고,

陽이 虛하여 陰을 억제할수 없을때는 陰이 盛하여 火(陽)를 消失시키기 때문에 陽의 衰弱상태가 지속되고, 陰이 虛하여 陽을 抑制할수 없게 되어 陽이 亢進될 때에는 陰의 衰弱狀態가 지속하므로 陰과 陽을 抑制 또는 補強하는 약과 施針을 적용한다. 즉 陽이 虛한 경우는 補하고 陰이 虛한 때는 陰을 補한다.

以上과 같은 방법으로 患畜의 陰과 陽의 平衡喪失로 인한 異常的인 病態를 治療해서 陰과 陽의 平衡을 回復시킨다.

藥物を 투여할때 藥物의 四氣(個性이라고도 함). 五味, 昇降, 沈浮 등의 일반적 性能이 있으나 이것은 陰과 陽에 의해서 藥物을 투여하므로서 說明할수 있다. 四氣의 藥物을 說明하면 冷한 藥物은 陰에 속하고 溫熱의 藥物은 陽에 속한다고 한다. 五味中에서 辛과 甘은 陽이고 酸과 若은 陰이며 昇降은 陽이고 沈浮는 陰이므로 藥을 투여할때는 반드시 病証의 陰陽과 藥物의 陰陽關係를 留意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陰証에는 陽의 藥을 투여하고 陽証에는 陰의 藥을 투여하며 陰과 陽이 交雜하였을 때는 陰과 陽에 속하는 藥을 併用한다.

#### 4) 飼養管理와 預防醫學의 應用

人畜이 自然界에서 생활할때는 時刻과 外界環境적영향을 받기 때문에 健康을 유지하려면 自然界의 陰과 陽의 變化를 파악하고 그것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動物體는 内外로 부터 받는 각종 복잡한 영향에 대한 外界環境의 적응성은 動物의 有機體內에 있어서의 陰과 陽의 變化와 自然界의 계절 및 기후 등의 변화와 사양관리조건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黃帝內經에 의하면 春과 夏는 陽을 양성하고 秋와 冬은 陰을 養成하므로 陰과 陽의 根元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動物은 四秀節과 氣候의 변화에 대해서 일정한 적응능력이 있으나 氣候의 변화가 심하거나 身體의 기능이 불안정할때는 좋지 않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動物體內의 陰과 陽은 平衡을 유지하여야 하며 自然環境의 陰과 陽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양관리자는 動物의 적응성에 적합한 환경을 助成해주는 등의 사양관리를 改善하여 家畜衛生을 강화함과 동시에 藥物 또는 針醫學에 의한 預防과 治療를 併行하여 陰과 陽의 平衡을 유지하므로서 預防과 治療의 目的을 達成할수 있다고 한다.

陰陽學說의 概念이 비교적 抽象的이며 矛盾의 相對平衡은 動物體가 正常的인 生理活動함에 있어서 基礎라고 하나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수 없다. 즉 陰平陽秘와 精神乃治 등과 같은것은 絶對平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陰과 陽이 轉化한다고 하나 重陰必陽, 重陽必陰, 寒板生熱, 熱板生寒 등의 理論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모순의 轉化를 필요로 하는 일정한 조건까지는 명확하게 認識되어 있지 않다.

陰陽學說은 陰과 陽이 相互間에 根源的으로 協調한다는 것과, 陰과 陽의 對立的인 鬭爭關係에 대해서는 아직도 證明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서는 陰陽學說은 自然的이고도 素朴한 理論의 弁證法的思想이라고 할수 있으나 現代의 科學의 弁證法의 唯物論과 同等한 立場에서 비교할수 없는 것이라고 思料된다.

= (다음에는 五行學說) =